

“헌법, 국민이 숙지해야 할 지적 재산”

“대통령과 그 측근 권력자들에게 의해 헌법질서가 침해되는데도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 등이 방관하자 마침내 이 땅의 주인이 나섰습니다. (...)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과 문제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 이석연 변호사 '헌법은 살아있다'

세계 헌정사상 유례없는 저항권 행사의 모범이 된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100일을 훌쩍 넘겼다.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의 국민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입증했다.

이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 조문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장식물이 아니다. 언제라도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권한이 됐다.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이자 자타가 인정하는 '헌법 등대지기'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헌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기대하며 '헌법은 살아있다'를 펴냈다.

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써보려는 오랜 생각의 결실이다. 대통령 탄핵과 개헌 논란으로 인해 헌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 지금, '딱딱한 법률 용어'로 가득 찬 헌법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헌법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헌신해온 이 변호사는 책에서 헌법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추상적·선언적 규

10대 위헌결정 사례를 해설하면서 헌법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기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간통죄 위헌결정 ▲재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후조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결정 ▲과외고급 금지 위헌결정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 ▲공권력 개인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결정 ▲통합집보장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김영란법 기각 등이다.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헌법소원을 통해 공익 소송의 활성화를 담당했던 이 변호사는 그동안 150여 건의 헌법소송을 맡아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위헌적인 법과 제도를 바꿔왔다.

일례로 1990년대 후반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한 택시기사로부터 부모의 상속된 빛을 '단순승인'해 은행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은 사례를 전해 듣고 민법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간파, 위헌심판제청을 해 이를 구제해주기도 했다.

결국 이 변호사는 '헌법은 살아있다'를 통해 오로지 '해(害)'를 막기 위해 눈으로 살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헌법'에 기대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길에 대한 해안을 제시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탄핵심판에서 제기되는 헌법적 쟁점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짚는다. 박 대통령 범위만 사항이 과연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는가, 탄핵심판 절차는 일반 형사 절차와 같은가, 탄핵 여부 결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는가, 탄핵심판 진행 중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는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는 어디

까지인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명확하게 지적한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법 위헌결정을 받아낸 이 변호사는 현 세중시 탄성의 비화, 세종시의 문제점 등도 자세히 밝힌다. 재대군인 가산점·모병제·동성애 논란 등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헌법 헌법이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는 것도 명확히 한다. "개헌은 더 이상 특정 지도자나 정파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묵살되는 정략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꿈으로써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민주화 조항과 자유 시장 외의 관계의 경제에 관한 내용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자부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기회의 균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하지만 뒤쳐진 계층을 끌어 올려 주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이뤄질 개정 헌법 안에는 반드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의 눈물과 한숨을 제대로 담아내는 법제와 정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 문제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의 건국 연대 시비도 헌법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며 "헌법은 국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뺏아들이는 블랙홀이자 이를 해결하는 아리아드네의 실"이라고 덧붙였다. 232쪽, 1만4000원, 와이즈베리

/뉴스

대통령 탄핵·건국절 논란 개헌 둘러싼 쟁점 등 민감한 논란거리 정리

법이 아닌 재판규범 또는 생활규범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헌법은 더 이상 전문가나 지식인,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숙지해야 할 지적 재산이라고 강조"한다. 현 시국을 진정한 '헌법시대'라고 선언하는 셈이다. '헌법은 살아있다'는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이나 건국절 논란, 개헌을 둘러싼 쟁점 등 우리 사회의 갖가지 민감한 논란거리를 헌법의 틀에 맞춰 명쾌하게 정리한다. 또 일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바꾼

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공모 선정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창작 생태계를 조성함은 물론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업비 20억(국비10, 도비5, 기타5)원으로 구축할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놀이마당에 컨테이너형 복합공간을 조성해 음악창작자들이 연습을 하거나 상설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창작자 워크숍 및 기획·홍보·마케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및 비즈니스 멘토링을 연계하여 창작물 사업화 및 융복합 창작콘텐츠 제작에 적극 지원한다.

도는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세미나를 개최하여 창작자 간 협업 및 음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여 K-POP확산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사업선정의 계기로 전라북도가 특화되어 있는 창작예술분야의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2017 문화누리카드' 28일부터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2017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을 오는 28일부터 발급한다고 사업 주관처인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이 사업에 978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161만여 명의 대상자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약 60억 원을 편성하고 9만9천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혜 대상자는 6세(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개인당 1매씩, 6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5만원이던 문화누리카드의 개인별 지원금은 올해부터 만원 추가 인상됐다.

단, 2017 스포츠강화 이용권 수혜자는 문화누리카드 중복 발급이 불가하다.

문화누리카드는 전용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공연·영화·전시 및 국내 4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여행, 숙박, 문화체험, 교육·시외버스, 철도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개인에게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필요에 따라 가족끼리 1매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농협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정된 가상계좌로 1카드당 10만원까지 입금·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충전된 금액에 한해서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은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을 통해 자세한 카드 사용처와 이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공연 & 전시

환상적으로 이끌어보는 과거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

교동아트미술관 박종수 '바람의 초상' 전

박종수 작가에게 청춘시절 작업의 화두는 사물을 끝까지 보지 않고 왜곡·과장함으로써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초현실주의였다. 작가는 고교시절엔 달리의 작품 '기억의 단편' '블타는 기린' 등 초현실주의 작품에 충격을 받았고 대학시절엔 마그리트의 작품에 심취해 있었다. 잠시 그런 작품세계에서 주춤거리다 싶더니 이내 다시 초현실주의 환상에 고개를 돌린 박 작가가 오는 19일까지 교동아트미술관에서 '바람의 초상' 전을 갖는다.

박 작가는 "지난 삶을 통한 '과거의 기억'과 살아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접목해 환상적으로 이끌어 내느냐는 고민을 안고 작업하고 있다"며 "데페이즈망(치환)을 통해 그림의 대상이 되는 현실적 사물을 과거의 기억에 조합시킴으로써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강상기 시인은 "아기자기한 풍경이나 포근한 정물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그림이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으나 박 작가



의 그림은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언제보아도 관타를 지 않는다"며 "그의 그림은 세속적인 일상을 뛰어넘어 영원의 세계를 향한 간절한 몸짓 있다"고 감상을 전했다. 박 작가는 고향 출생으로 고향고과와 조선대 미술교육과, 대학원 등을 졸업했다. 전북도전 서양화 수석상 2회 수상(동상, /정해은 기자

은상) 및 특선, 전남도전·구상전 특선, 국전 입선 등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전북미술대전과 은고을미술대전 심사위원장, 평화통일미술대전·행주미술대전·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상형전, 한국미협, GA 회원,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광주미술상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15일>

<p>▷쥐띠 48년생: 태인하고 상의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못하니 주의하라. 60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날이다. 72년생: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니 미리 대비하라. 84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p>	<p>▷소띠 49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61년생: 어려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73년생: 동기간과의 협동으로 해결된다. 먼저 손을 내밀어라. 85년생: 모진 말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으니 원망하는 마음을 거두고 귀를 기울여라.</p>	<p>▷호랑이띠 50년생: 외부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기쁨에 시달리다 단바를 만난 격. 74년생: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원행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이니 주의하라.</p>	<p>▷토끼띠 51년생: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좋았던 사람은 어려워지니 대비하라. 63년생: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힘들게 하는 소리가 도울이 된다.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날이다.</p>
<p>▷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를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들을 얻었으면 하나를 보내야 하는 운이니 짐작은 금물.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하니 마음을 비워라.</p>	<p>▷뱀띠 5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운이니 조심하라. 65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좋게 돌아갈 수 있으니 소심하지 마라. 7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라.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니가는 운이다.</p>	<p>▷말띠 54년생: 주변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르게 되니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90년생: 악의 없이 행동한 일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는 운이다.</p>	<p>▷양띠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67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운이니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91년생: 변동하면 흥분하고 좋아지니 망설이지 마라.</p>
<p>▷원숭이띠 56년생: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때.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68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80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니 언행에 삼가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라. 92년생: 지나친 과민성은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아끼히니 조심하라.</p>	<p>▷닭띠 57년생: 볼에 수확을 하려는 격이니 때를 기다려라. 69년생: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힘드니 차츰 운이 좋아질 듯. 81년생: 변제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천수신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면 편안해질 것이다.</p>	<p>▷개띠 46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상황을 잘 살펴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8년생: 이상과 상대하면 일이 잘 안풀려진다. 70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뒤로 물러서라. 82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래 다가오는 운이다.</p>	<p>▷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59년생: 움직이면 이익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71년생: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일이 틀어질 수 있음이니 조심하라. 83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후에 움직여야 한다.</p>